



2019 순천시 승격 70주년

‘순천 방문의 해’ 추진한다

다각적 마케팅 통해 대·내외적 홍보 계획

2019년은 순천시의 시 승격 70주년과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이 되는 의미 깊은 해가 될 전망이다. 순천시는 여러 가지로 의미있는 2019년을 ‘순천 방문의 해’로 추진하기로 하고, 순천지역 방문 붐을 조성할 위하여 ‘생태관광 거점 도시’로 브랜드 구축 목표를 정하고 다각적인 마케팅을 통해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순천방문의 해’ 추진을 위하여 슬로건과 브랜드 이미지(BI)를 제작하여 홍보 마케팅에 이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2019 순천방문의 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

여 행정기관과 시민들이 함께 협업하여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제승연 관광진흥과장은 “‘2019 순천 방문의 해’ 선포식을 오는 8월에 서울에서 개최하여 대대적으로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라”면서 “우선 관광인프라 구축·관광콘텐츠 육성·관광객 수용체계 확립 등을 점검하고 순천여행상품 개발 등 준비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종훈 순천시장은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는 지금까지 생태도시 순천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을 집대성하는 것이다”며 “이를 통해 순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수는 1,000만명을 넘을 것이다”고 밝혔다.

며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써 2019년은 순천시의 대도약의 해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2019년은 순천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순천시청사 건립을 위한 첫삽을 뜨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2019 순천 방문의 해’ 준비를 위해 ‘순천 구석구석 미사일 허브’ 구성, 순천생태여행 상품 공모전을 통한 전담 여행사를 운영,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말 순천과 부산간 트래블버스 운행 등 관광객 편의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도심순환 트롤리버스와 관광택시를 활용한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관광분야 종사자 미인드 교육, 숙박·음식업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관광객의 편의와 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군민 건강 지킨다

작년보다 62% 증액 4억 6천만원 들여 139동 철거

화순군은 주택 노후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62% 증액된 4억 6천만원(국비50%, 도비10%, 군비50%)을 확보해 주택슬레이트 139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지붕 재로 집중 보급됐던 슬레이트는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군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 슬레이트의 철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다.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순서와 우선순위(사회 취약계층 등)에 따라 대상을 선정,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1기구당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환경과(061-379-3591)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한복입고 황포돛배 타자’ 나주시 설 명절 할인 이벤트



나주시가 민족 최고 명절인 설을 맞아 15일부터 18일까지(16일 설 당일 휴무) 영산강 황포돛배 텁승 특

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1일 나주시는 명절 고유의 풍습을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쓸 수 있도록 이 기간 한복을 차용한 황포돛배(왕건호 포함) 이용객에게 50%요금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을 활용한 지역 대표 관광 상품인 황포돛배 텁승 체험은 영산포 선착장(나주시 등대길 80)에서 한국현역영색박물관까지 10km 구간을

약 1시간 동안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정각에 출발한다.

체험관련 자세한 문의는 황포돛배 선착장(☎061-332-1755)로 하면 된다.

시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영산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황포돛배를 통해 명절연휴 가족, 친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3천만 원 미만 사업까지 확대

광양시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건설품질심사 대상이 아닌 3천만 원 미만 사업까지 심사를 확대한 결과 예산 절감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다.

읍·면·동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주로 공사비 3천만 원 미만으로 적정원가 산정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돼 건설품질심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있었다.

이에, 시는 적정 원가심사 및 설계

도서 작성 기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기준의 건설품질심사 대상이 아닌 3천만 원 미만 사업까지 확대해 1월 2일부터 26일까지 건설품질 표본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건설품질심사에서는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6건 35억3천만 원 중 공사내용과 공정 등을 고려해 각 2건씩 총 24건 5억3천4백만 원을 표본으로 추출해 진행됐다.

시는 심사과정에서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여부 ▲설계가 낭

비 없이 잘 되었는지 여부 ▲계산착오 등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1천 8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강병재 설계심사팀장은 “표본심사에서 발생한 주요 지적사항을 읍·면·동으로 통보하고 내부 전산망에 게시해 공유함으로써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건설품질심사를 꼼꼼히 해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화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과일과 야채 이미지

- 파프리카
- 복숭아
- 블루베리
- 산양삼
- 느타리버섯
- 방울토마토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와 힐링을 즐기는 커플의 모습